저 줄리아나는 레바논—베이루트와 그곳에 있던 모든 신자들을 존경합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저는 교황 레오 **14**세의 미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로마와는 달랐지만,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는 로마만큼이나 많았습니다. 성체가 분배될 때,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입으로 성체를 영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년 동안 오직 입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 올바른 영성체 방식만을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바논에서는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경우가 단 한 건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고, 독일의 많은 분들도 이를 보셨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중,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울고 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이 가득 차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세주께서 종종 “손으로 받는 성체는 내 눈에 가증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것이 확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미사에 참석했던 마리아 린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성체를 영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곳, 제가 자주 다니던 포르바흐 교회에서는 신부님께서 공개적으로 “저도 입으로 성체를 영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한 여성이 교회에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성체를 영하려면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지 말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미지근하고 거짓 경건함에 빠져서 단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따른다면, 그들은 손으로 성체를 영하게 될 것이고, 구세주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 성부, 성자, 성령께, 저에게 이 사실을 보여 주시고 제가 입으로 성체를 영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셨으며,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www.gnadenvolle-gebete.de **2025**년 **12**월 **5**일

독일 포르바흐, 에르베르스브론,
율리아나, 베르나르트